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4년 4월

선교편지 제 65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들과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성경 공부등의 프로그램 준비보다, 아마도 함께 친교를 나누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식사'와 '간식'일 것 입니다. 그나마 '간식'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낵과 음료수를 지루하지 않게 매주 바꿔가며 시장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식사'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여건상 학생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집 밖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러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보다는 '식사'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주민의 주식은 '쌀밥'입니다.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빵이나 면 종류는 별로 반가운 메뉴가 아닙니다. 체구가 작은 여학생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의 두 배 이상을 먹을 정도로 '쌀밥'의 선호도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쌀밥'을 중심으로 식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집에서 늘 먹는 평범한 식사 뿐만 아니라, 때때로 집 밖에서 평소에 잘 해 먹기 힘든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그 지방 고유의 색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여행의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곳에서는 집 밖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고 할 지라도, 대부분의 음식이 제 입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짜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고 나서는 입이 마르고, 목이 타 들어가는 갈증으로 인하여 식사의 즐거움은 커녕, 후회로 많은 물을 들이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밖에서 식사를 해야하는 경우에, 혹시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제 음식에는 '소금'과 '조미료'를 조금이 아니라 절대로 넣지 말라고 당부를 하곤 합니다. 그래도 제게는 이곳 음식이 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 맛의 차이가 학생들이 먹는 '식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중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동안 많은 고민 끝에 메뉴를 선정하고, 제 아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접하는데, 먹는 모양이 시큰둥합니다. 맛있다고 하는 인사말들이 진심이 아님을 얼굴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먹어보기 힘든 한국 음식과 좋아할만한 색다른 퓨전 음식도 준비해서 가는데, 밥은 부족할 정도로 잘 먹지만, 준비한 반찬은 남기기가 일쑤 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미안할 정도로 얼마나 허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 끝에 원인을 알고 보니, 제 아내가 준비한 식사가 제 입 맛에는 잘 맞지만, 학생들에게는 너무 싱겁고 또한 음식에 넣는 익숙한 조미료 (아지노모토)가 빠져있어서 한마디로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 아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을 학생들에게 먹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게 하기도 하고, 토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학교 앞 식당(?)에 부탁을 하여 학생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맞추어 매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학생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허겁지겁 잘 먹게 되었는데, 덕분에 저희들은 '맨 밥'만 먹고 있지만 마음은 훨씬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 훈련을 받는 고등학생들 가운데 10명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 학생 중 3명은 기존의 장학생들이 진학한 인근 마띠 지역의 스파마스트 대학이 아니라 디고스 중심에 있는 민다나오 대학 (University of Mindanao) 이라는 훨씬 크고,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꿈이 더 커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지만, 이 학생들을 통하여 스파마스트 대학 뿐만 아니라, 민다나오 대학에도 언젠가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어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기존의 스파마스트 장학생들과 새롭게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장학생들이 상견례를 겸하여 인근 지역으로 놀러 가는 계획을 준비했었는데, 몇몇 대학생들의 수업 일정과 중복이 되어 계속 미루다가 마침내 지난주에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역시 '식사' 문제 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맛있게 준비를 해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떠나기 며칠 전부터 저희 집 이웃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를 특별 초빙해서 시장을 보는 일부터 현지 음식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부탁했습니다. 특별한 날답게 학생들이 좋아 할 만한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갔는데, 생각대로 모두들 대 환영입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아직까지 수저가 아닌 '맨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들이 외국인인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불편한 내색을 하지않고 수저를 사용하며 식사를 해 왔었는데, 이 날만큼은 '맨 손'으로 먹어야 제 맛이 난다면서 몇몇 학생들은 입에다 손으로 음식을 쏘아 붓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랜동안 제자 훈련으로 함께 하면서도 항상 경직되어 있고, 꼭 필요한 말외에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던 '자이폴'이라는 남학생의 변화입니다. 현지 음식으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던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서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많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상견례 중에 선배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현지 음식이 짜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에 좋은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 9:7)**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밤 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TV나 신문을 통하여 험악한 소식을 많이 들려 오지만,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현지인들의 성품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을 거의 들을 수가 없고, 언제나 웃는 모습이고, 부끄러워하고, 특별히 면전에서 'No!'라고 거절하기를 어려워할 정도로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부탁을 할 때면, 'Yes'와 'No'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혼선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헤어진 후에,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하면,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음 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No' 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소소한 일상 뿐만 아니라, 이곳 선교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위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현지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 의욕이 넘친 회의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의외로 대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Email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대답은 들을 수 없고, 그냥 흐지부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어 버리기가 일수입니다. '안된다.', '못한다.' 등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잊혀 질 때까지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공서를 방문하여 공무원들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할 때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된다'는 대답은 거의 들을 수가 없고, '기다려 달라'는 대답으로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No'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속을 태운 후에야 체념과 함께 얻게되는 허탈한 결과입니다.

디고스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만, 단 한번도 부정적으로 대화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환영하고, 기대하고,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막상 구체적인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Yes'와 'No'를 알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안되는 일이면, 바로 'No'라고 대답을 해 주면 시간도 많이 절약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는데, 안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긍정으로 대답을 하고는 함흥차사가 되어 버리기가 일수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부드러운 성품 때문임을 잘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의 가장 연약한 성품 중에 하나인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러 모양으로 책망을 하는 듯합니다.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숫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 130:6)**

학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다양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한가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좀 더 다른 이유로 저희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외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시 학비를 포함한 재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심심치 않게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선물과 함께 매주 식사와 간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의 이유들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관계의 이유들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여 선교의 도구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보적인 관계들로 시작하여 마침내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끄는대로 마치 순한 양처럼 주님을 따라 가는 학생들도 있고, 처음에는 소극적 이었지만 마침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 들이는 학생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사랑을 쏟으며 주님을 소개했지만 변화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관계 보다는, 관계로 인한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하며,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섭섭함으로 인하여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학생들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며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아무리 쏟아 부어도 제 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조급함과 싸워야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이를 수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더디게 변화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전 3:9)**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학원 선교를 위하여
3.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4. 두 아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